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2년 12월 13일  
(목요일)

복부신문 3면

## 강북구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노력해야

구본승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심 주장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은 지난 3일 열린 강북구의회 166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와 지역사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동량인 청소년 중에 학교생활 부적응, 집안 사정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채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위한 관심과 성장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5분 자유발언에서 강조했다.

구 의원은 발언을 통해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파악과 구청, 교육청,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과 가능한 지원방안 마련 및 조례 제정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 사항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의 서면답변을 요청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 17조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책 마련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대전, 광주, 경기, 전남)와 기초자치단체(노원, 강동, 부천, 안양)에서도 조례를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는 중.

이에 대해 구 의원은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자신감 있게 성장하고 미래를 가꿔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성장과 교육 지원에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면서 “향후 조례 제정과 사업 기획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사프리신문 4면(12월 12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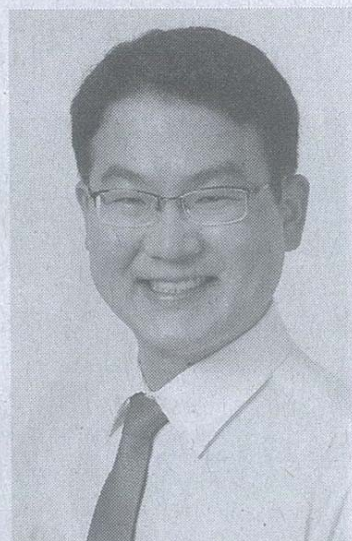
구본승 구의원

##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노력해야”

강북구의회 구본승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3일 열린 강북구의회 166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와 지역사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동량인 청소년 중에 학교생활 부적응, 집안 사정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채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위한 관심과 성장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구본승의원은 발언을 통해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파악과 구청, 교육청,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과 가능한 지원방안 마련 및 조례 제정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구체적 사항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서면답변 요청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제 17조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책 마련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7월 30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대전, 광주, 경기, 전남)와 기초자치단체(노원, 강동, 부천, 안양)의 조례가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다.

구본승의원은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자신감 있게 성장하고 미래를 가꿔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성장과 교육 지원에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향후 조례 제정과 사업 기획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